천주교의정부주보
DIOCESE OF UIJEONGBU

2021년 3월 7일
나해 · 제899호

• **발행인** 이기헌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사순 제3주일

입당송 시편 25(24),15-16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탈출 20,1-17

화답송 시편 19(18),8.9.10.11(◉ 요한 6,68ㄷ)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제2독서 1코린 1,22-25

복음 환호송 요한 3,16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요한 2,13-25

영성체송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성지

당고개(용산) 순교 성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39-26(신계동 56)

관할
서울교구 02-711-0933

용산 당고개는 기해박해 이틀간 10명의 교우들이 순교했던 곳이다. 당시 설을 앞두고 대목장에 방해받지 않으려는 상인들의 요청으로, 서소문 밖에서 한강 가로 나아간 이곳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한편, 증언에 따르면 최초의 조선인 사제 김대건 신부가 새남터로 향한 참수 길에 잠시 쉬어 갔던 곳이기도 하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0명의 순교자 중 9명을 1984년 5월 6일에 시성하였다. 어린 자식들 때문에 한때 마음이 약해져 배교했던 이성례는, 뒤늦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2014년 8월 16일 시복되었다.

1986년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성지로 조성되었으나, 2008년 아파트 건립 공사로 기념비는 철거되었고, 주변이 정리된 2011년, 신계 역사공원 내에 '찔레꽃 아픔과 매화꽃 향기 가득 찬 어머니 성지'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며 매일 저녁 9시에 주모경을 함께 바칩니다. ✚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김시용 베드로 신부
연천 주임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느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지내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큰 희망을 안겨 주십니다.
제가 있는 연천 성당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까닭에 희년 지정 순례지가 되어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풍성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은 연천 성당을 찾는 순례자들이 거의 없지만, 순례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사 전 묵주기도 5단을 드리고 미사 후 30분 성체현시와 성체조배를 하면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천 성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삼삼오오는 안되고 삼삼사사로 연천 성당을 방문하셔서 은총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오늘 복음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에는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구절이 있고, 뒷부분에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그들의 믿음까지도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 세계는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라는 두 극단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매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지구촌 구석구석의 일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합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아지면서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문득 해 봅니다.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나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알 권리에 대한 충족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가? 정말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다는데, 나는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반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계실까?

코로나로 인해 만남의 시간이 크게 제약받는 이번 사순 시기는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더욱 깊이 하고, 그 마음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 10,8)

진영진 세례자요한 신부
야당맑은연못 부주임

찬미 예수님! 야당맑은연못 성당 진영진 세례자요한 신부입니다. 사제서품 후 처음으로 부임한 본당에서 ‘신부님!’이라는 소리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제 서품 성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부제서품 이전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이사 43,1)라는 말씀을 제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주신다는 말씀을 핑계로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하며 생활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제서품 성구는 제가 힘을 받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지향을 담은 구절로 정했습니다.

마태오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걱정되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말씀하셨을까요? 파견을 앞둔 제자들과 저 자신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구절은 사제품을 받고 파견될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 서품 성구인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는 구절은 사제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은 하느님의 도우심과 많은 교우분의 기도를 떠올려줬습니다. 주님과 교우분들께 받은 사랑으로 걷게 될 이 길에서 ‘안면몰수’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라는 초대로 여겨집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드리고 싶은 열망을 품습니다. 제 시선이 스스로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을 살피고 더욱 열심히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서품 성구를 간직하려 합니다.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주고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의 표현이고 도리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도리를 지키는 사제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 말씀 안에서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교우분들께서 저에게 신신당부하셨던,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말입니다.

가톨릭성가 152번 - 오 지극한 신비여

이새론 안토니오
이운형 마리아
김구환 루까

2021년 사순시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연말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성탄'을 보냈는데요, 부르지 못했던 캐롤들이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의 동심을 발랄하게 노래한 가톨릭성가 109번 "귀여운 아기들"이란 곡, 기억하시나요? 이 성가의 원작자로 유명한 요한 네포무크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폰 슈미트 Johann Nepomuk Christoph Friedrich von Schmid 신부가 오늘 "성가의 참맛"의 주인공입니다.

1768년, 크리스토프 폰 슈미트는 아홉 명의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딜링겐 신학대학에 입학하였고, 1791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 독일 민들하임 시의 나젠베우렌 마을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합니다. 슈미트 신부는 청소년 사목에 깊은 관심과 조예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성가 "귀여운 아기들" 외에도 어린이들이 읽기 쉬운 50여 편의 짧은 신앙 이야기들과 수많은 성가 가사들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성가, 가톨릭성가 152번 "오 지극한 신비여" 또한 슈미트 신부의 작품입니다.

"오 지극한 신비여"의 원곡은, 루터파 개신교 신학자이며 시인인 요슈아 스테그만이 1627년에 작사한 "그대 은총 안에 머무소서 Ach bleib mit deiner Gnade"란 성가 가사에, 성음악 가수이며 작곡가인 멜키오르 푹스 Melchior Fuchs(라틴어명 불피우스 Vulpius)가 1609년경에 작곡한 "나의 삶, 그리스도 Christus, der ist mein Leben"의 성가 가락이 붙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성가 "그대 은총 안에 머무소서"는 '개신교 공동체 찬양을 위한 멜로디'라 칭해졌고, 새해가 오면 예배 끝에 반드시 불러야 할 정도로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이 성가의 인기는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전해져 슈미트 신부가 작사한 '최후의 만찬에서 Beim letzten Abendmahle'라는 가사와 함께 알려지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Beim letzten Abendmahle*
돌아가시기 전날 밤	*die Nacht vor seinem Tod*
예수께서 빵과 술로	*nahm Jesus in dem Saale*
하느님께 감사드렸네	*Gott dankend, Wein und Brot*

예수님의 은총과 말씀 그리고 축복에 대해 이야기한 스테그만과 달리 슈미트 신부는 다른 무엇보다 성찬 전례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 자신을 희생하셨던 까닭은 다름 아닌 '지극한 사랑'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서로 나누고 전하라고 강조합니다. 두 호흡에 다 부를 수 있는 무척이나 짧은 가락에 신앙의 정수를 꼭꼭 눌러 담은 성가. 외로이 화면을 보며 원격미사를 드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마음을 담아 불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생명의 빵을, 놀라운 사랑을"

■ QR코드로 이 곡을 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
수동 주임

성경으로 보는 평화 증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건네신 인사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루카 24,36; 요한 20,19) 그래서 우리도 미사 때마다 서로에게 평화를 빌어줍니다.

하느님의 근본 속성인 "평화"

태초에 하느님께서 만드셨던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피조물들이 각자 자립하면서도 전체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창세 1,4.10.18.21.25.31 참조). 따라서 본래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생명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죄로써 하느님을 거부하였고 이어 피조물 간의 조화로운 관계마저도 깨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간관계(창세 4,1-16 참조)와 사회관계(창세 11,1-9 참조) 안에 폭력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에는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민수 6,2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평화의 약속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메시아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욥 25,2; 시편 29,11; 37,11; 72,3.7; 85,9.11; 119,165; 125,5; 128,6; 147,14; 아가 8,10; 이사 26,3.12; 32,17 이하; 52,7; 54,10; 57,19; 60,17; 66,12; 하까 2,9; 즈카 9,10 참조).

그리고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평화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루카 10,5; 로마 1,7 참조) 또한 그분께서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그분께서 수난 전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도 평화의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분열과 적개심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 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앎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 11,6-9)

지역아동사목위원회

도담도담 공부방, 도담 학교

'도담' 야무지고 탐스러운, '도담도담'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탈 없이 잘 놀면서' '야무지고 탐스럽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요. 그러면서도 그 희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제적 또는 정서적 이유로 가정이 더 위험하거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각자의 사정으로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의정부교구 지역아동사목위원회 이석재 바오로 신부입니다. 지역아동사목위원회는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하느님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정서적, 교육적으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담도담 공부방>과 <도담 학교>를 소개하려 합니다. 진접에 있는 <도담도담 공부방>에는 약 30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방과 후 모여 '탈 없이 잘 놀면서' 부족한 학교 공부도 하고 함께 밥도 먹으며 서로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도담 학교>에는 1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야무지고 탐스럽게'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를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모일 수 없던 터라 <도담도담 공부방>에 찾아온 아이들에게는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살핀 후 집에서 먹을 도시락을 챙겨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 <도담 학교>로 와야 할 친구들이 갈 곳 없어 길을 서성일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준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또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후원자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따금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유튜버라는 아이도 있고, 누구는 편의점 주인이라고 해서 즐거운 웃음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꿈을 꾸기에는 그동안 경험한 것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성당을 다니며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섰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나도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경험했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주변 환경을 통해 저만의 꿈을 선물 받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좋은 것을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만의 꿈을 갖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 놀면서 자라고 자신만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

문의 031-850-1493 / **후원** 농협 204062-55-001140, 우리 1006-801-236074 (재)천주교의정부교구

우리 교구 사회사목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탄식

음악 이야기
최대환 세례자 요한 신부
대신학교 생활지도

새해와 설날 사이의 시간에 마종기 시인이 지난 가을에 낸 시집 <천사의 탄식> (문학과 지성사, 2020)을 읽었습니다. 마음은 바쁘되, 일은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않던 시기에 노시인이 전해준 '천사의 탄식'은 가르침이고 위로였습니다

시집은 그리움의 마음과 이별의 준비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언어로 가득합니다. 슬픔과 애잔함을 감추지 않지만, 겸허함과 감사함이 절절하게 감싸고 돕니다. 새해에 읽고 듣는 '천사의 탄식'은 환상과 호기 대신,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시간을 올 한해 묵묵히 걸어가기를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시 '천사의 탄식'의 시작은 인생의 자서전 같습니다.

"기댈 곳이 정말 없네. 어디에 누워도 메마른 신음, 어디에 가도 목이 막힌 주검들, 지친 몸 쉴 곳 없는 낯선 땅이 내 상처였지."

마치 시편의 화자처럼 시인은 탄원과 탄식을, 두려움과 답답함을, 삶의 여정에 두터운 먼지처럼 쌓여온 과오와 실패를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길지 않은 세월과 함께 만나게 될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당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분의 나라에 드는 것을 한발 물러서고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모순'을 고백합니다. 결국 인생의 끝에서 헐벗은 나뭇가지처럼 비우고 벗고 내려놓는 것이 인간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욕심이 크지 않고 남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 내 열병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지. 벌거벗어도 아름다웠던 날이 있었지만 이제 무엇을 더 피하고 무엇을 더 감추어야 편안해질까. 어느새 세대에 찢긴 바람도 멎고 내 영혼이 당신께 귀 기울입니다. 어려운 일곱 마디 말을 다 듣고 나서야 헐벗은 당신 윤곽이 차츰 분명해집니다."

인생에 잠깐씩 나타나는 '무지개'는 환상일까, 진실일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시인도 수없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황혼과 일몰 속에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밝고 깨끗한 곳이 아니고 어둡고 고개 숙인 골짜기에만 무지개가 산다는 것을 자주 잊는다. (...) 저기 고통에 절어 탈진된 채 망연히 서 계시는 이는 누군가. 스타바트 마테르의 노래가 들린다. 고통을 이겨낸 배경으로 찬란한 무지개가 선다."

노시인은 마지막으로, 인생은 한숨 소리로 가득 차서 힘겨운 것이었지만, 그것이 절망의 신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쓰러져 피흘린 자에게 들리던 탄식은 들리던 탄식은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 눈을 뜰 줄 몰랐으니 한숨의 의미도 몰랐던 거지. 우리는 결국 다함께 일어난다는, 다정하게 들리는 저 천사의 탄식!"

마법과도 같은 새해의 시간은 우리가 한 해 동안 겪을 어려움과 도전을 되새김하여, 내면을 변화시킬 힘을 주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시인이 노래하듯 '생애의 성사를 받을 시간, 수많은 죄와 회한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당신께' 다가가는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이어집니다. 올해의 사순절이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시간이기를 기원합니다.

'천사의 탄식'을 구하며 듣고 싶은 앨범이 있습니다. 탱고라는 술집의 여흥거리 음악을 당당한 현대음악에 속하게 한 작곡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음악 중에서 '천사'라는 주제로 작곡한 곡들과 그 밖의 다양한 음악들을 모아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열 두 첼로 주자들이 연주한 <천사의 춤 Angel Dances> 이라는 앨범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천사의 밀롱가"를 들어봅니다.

YOUTUBE로 보기

베를린 필하모닉 '12 첼리스트'
"천사의 밀롱가(Milonga del Angel)"

교구장 동정

3월	8(월)~12(금)		주교회의 2021년 춘계 정기총회
	12(금)	15시	지구장회의 – 교구청 회의실

교구 소식

제12기 경기북부 도시농부학교

교육기간 3/13(토)~11/13(토)
모집인원 25명(선착순)
수업료 13만 원(밭분양비 포함)
신청마감 3월 12일(금)
문의 환경농촌사목위원회 031-850-1492
입금 우리은행 1005-701-386308 (재)천주교의정부교구

의정부교구청 사제숙소 대건의 집 미화 및 주방직원 모집

인원 여 ○ 명
마감 채용시까지(업무시작일: 2021년 4월 1일)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우편접수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3층 관리국
근무처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171-2
문의 031-850-1426(의정부교구청 관리국)

청년 회장단·단체장 연수 [주제 : 소통(슬기로운 청년생활 in 팬데믹)]

일시 1차 – 4/10(토), 2차 – 4/11(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대상 지구와 본당의 청년 회장단·단체장·주일학교 교감(본당 청년대표)
접수기간 3/26(금)까지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청년부

유튜브 채널 〈천주교의정부교구〉 의정부교구 온라인 사순 특강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해 알아가는 총 3회의 영상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3/19(금)	신분제가 강했던 조선시대에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
3/26(금)	세 명의 신학생
4/2(금)	신앙의 길을 개척하다

강사 김성태 요셉 신부(대전교구, 내포교회사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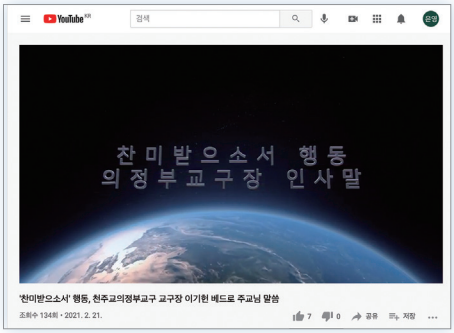
유튜브 채널 〈천주교의정부교구〉를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새 강의가 올라올 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느님의 집 후원 현황 (2월 22일 기준) – 신설 성전 부지 구입 기금

전월잔액			3,171,383,334원		
2월 후원	사제와 개인	본당 입금	기타(미사예물 외)	교구 부서	합계
	170,000원	41,006,110원	1,438원	100,000원	41,277,548원
1월 지급	2020년 신설본당(다산, 목동동, 옥정) 종교용지 구입 대금				3,718,140,000원
월말누적잔액					3,212,660,882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앙생활 지침서 14 – 추천 온라인 컨텐츠 여섯 번째

많은 유튜브 채널이 다양한 관점에서 교회의 교리, 전례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훌륭한 내용이지만 성경이나 교리(사회교리 포함)의 경우는 꼭 교회 공식 채널에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식 채널의 경우 개인 의견이나 다른 의도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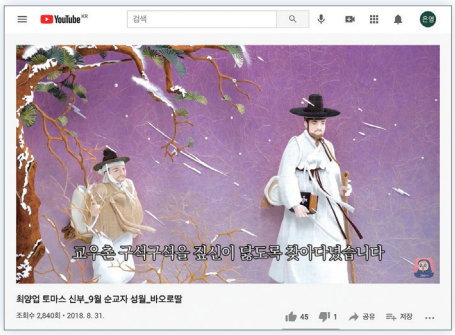


찬미받으소서 행동_7년 여정 플랫폼 준비에 관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세계 곳곳의 대형 화재 등 우리 지구의 이상 징후는 '기후 위기'가 근본 원인인 '예견된 재난' 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아 앞으로 우리 가정, 본당이 바뀌어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연결된 '행동 자료집'을 함께 추천합니다.

백색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지난 3월 1일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제이자 첫 신학생인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1821-1861)의 탄생 200주년으로 모든 본당에서 시복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신자들을 위해 전국을 누비다 과로로 선종한 최양업 신부님의 선교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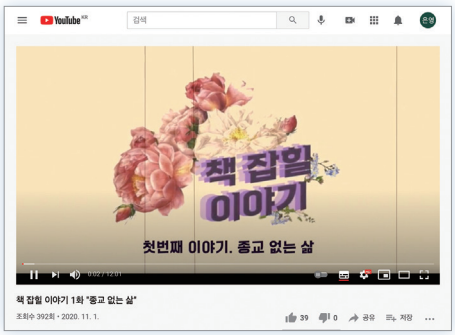


5분 요약– '사순'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사순' 말이 어려우셨나요? 사순의 뜻, 사순 시기 의미, 파스카 축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순의 의미와 사순 시기의 마음가짐을 알아보세요.

책 잡힐 이야기 1화– 책 「종교 없는 삶」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만드는 청년 유튜브 사회교리 컨텐츠 중 하나로 책을 좋아하는 가톨릭 청년 평신도들이 직접 읽은 책을 소개하고 신앙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코너입니다. 도서 「종교 없는 삶」을 통해 '신앙이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내 삶에서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거꾸로 생각하게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미사 · 피정 ▶▶

'2021년 고양-파주 평화지기 월례 미사' 신설 안내

일시: 3/16(화) 20시
대상: 5·6·7·8지구 평화사도 및 민족화해분과장·위원, 평화와 환경 보존에 관심 있는 교우 누구나
장소: 031-975-2050 일산 성당
문의: 031-941-6235~6 민족화해위원회
기타: 추후 '의정부-양주-동두천-남양주 평화지기 월례 미사(1·2·3·4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장소: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36만 원(효소비 포함)
일시: 3월(12~15, 26~29), 4월(23~26)
문의: 노경덕 신부(010-9916-5798)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제주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성지순례피정: 3/15~18, 3/21~24, 4/5~8
자연순례피정: 3/27/~29, 4/16~18, 4/26~28
접수: 02-773-1463, 064-756-6009

교육 · 모집 ▶▶

돈보스코 내일이룸학교 학생모집

대상: 15~24세 남(학교 밖 청소년)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2021년 2월~12월(02-828-3600)
혜택: 교육비, 기숙사 무료, 수당지급
최근5년평균취업률 89.2%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
과정: 17~21세(고등과정), 2년 6학기제
입학: 1, 5, 9월 입학 가능 /통학(기숙 가능)
교육: 영상제작(극,다큐), 시나리오, 미술공예, 진로진학
블로그: blog.naver.com/donboscoschool
위치: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살레시오미래교육원
문의: 02-833-0930 /dybsbosco@daum.net

예수회 특별강좌〈가톨릭 신앙과 영성〉2021'봄'강좌

강사: 주원준 박사 및 예수회 사제·수사(김정택, 조인영, 송봉모, 정제천, 전주희, 김우중)
현장강의: 매월 둘째,넷째(화) 10시~11:55, 총7회 /예수회센터 3층 성당, 3/9(화) 개강
동영상 녹화 강의: 현장 강의를 녹화하여 1주일 후 동영상 링크 발송 / 1주일동안 수강 (예: 3/9 강의는 3/16에 발송)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 자폐성 발달 장애인 (경기도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가능,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pjdoran

202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용:가톨릭 신학 26과목
원서접수(추가): 3/31(수)까지(우편신청가능)
문의: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안내 · 기타 ▶▶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수도원 체험

대상: 수도생활에 관심이 있는 39세 이하의 가톨릭 미혼여성 /모집인원: 1~2명
체험기간: 코로나 검사(1박2일)를 제외한 4박 5일 이상(조정 가능)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늘푸른자활의집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www.green1004.or.kr

노인공동생활가정 바오로 성모의 집(유료)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하신(여성분)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98번지
운영기관: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담당자: 010-9428-2247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불안.우울.가족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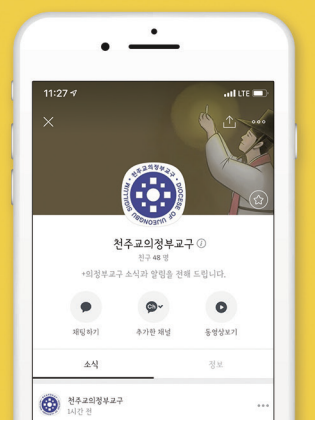
전화상담 02-990-9366, 월~금 10시~4시
대면상담 02-990-9360, 예약 필요함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일시: 3/14(주일), 14시~17시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장소: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또는 비대면
문의: 010-3817-0567 노혜인 안나 선교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중독 중점치료(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09시~17시) /야간진료(화 18시~20:30)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천주교의정부교구 KakaoTalk 채널 오픈!

Ch 천주교의정부교구 +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실행하기 → 검색창에 채널명 입력하기 → 채널 추가하기

교리 교육 여정

복음화 활동의 구분 ②

복음화의 네 가지 표징 '봉사, 친교, 증거, 전례'

교회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기 위함입니다("복음화 활동의 구분 ①" 참조). 또한 교회공동체에 속한 하느님 백성 모두는 좋은 지향으로 서로 협력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활동이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인 하느님 백성의 구체적 중재 활동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므로, 가시적 교회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적 공동체가 됩니다.

교리교육적 전망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사적 특징을 드러내는 네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사, 친교, 증거, 전례입니다. 이 네 가지 표징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듯, 초기 교회공동체가 형성될 때부터, 곧 첫 신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사도 2,42-47)

초기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는 세상 안에서 ①봉사, ② 형제애의 나눔, ③ 복음 선포, ④ 찬미의 예배를 통해 교회가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의 원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봉사의 표징: 이웃을 위한 사랑과 봉사 안에서 실현되는 하느님 나라
- 친교의 표징: 형제애와 친교 안에서 생활하는 하느님 나라
- 증거의 표징: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하느님 나라
- 전례의 표징: 전례를 통해 축제와 해방의 예배가 거행되는 하느님 나라

이러한 복음화의 네 가지 표징은 바로 교회가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활동 전체 안에 깔려 있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표징은 개별적으로 따로 분리될 때,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에 한계를 지닙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교회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성사가 되게 하는 네 가지 표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훈 가브리엘 신부_ 문산 주임